

지눌의 돈오점수와 이문정혜* (二門定慧)의 쌍수(雙修)

정혜정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jhjnim@hanmail.net

- | | |
|--|----------------------------|
| I. 서론 | IV. 돈문(頓門)의 이문정혜쌍수(二門定慧雙修) |
| II. 무엇을 돈오(頓悟)하는가? | |
| III. 돈오에 의지하는 점수(漸修): 원수(圓修)·원점(圓漸)·점원(漸圓) | V. 결론 |

요약문

본 연구는 지눌의 돈오점수와 정혜쌍수를 재검토하여 돈오와 점수, 자성정혜와 수상정혜의 이문수행이 어떻게 융합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돈오란 자성을 돈오함인데 ‘공적하면서도 신령한 앎이 비추이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또한 성불은 돈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성의 작용을 이루어 자타불이의 원만행까지 나가는 것인데, 자성의 작용에는 자성 본용(本用)과 인연을 따르는 응용(應用), 두 가지가 있다. 지눌의 마음 수행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인연을 따르면서도 자성의 근본작용을 어떻게 나타내느냐를 주된 핵심으로 삼는데, 그의 돈오점수 수행은 원수(圓修)·원점(圓漸)·점원(漸圓)의 과정을 성불로 삼는 수행이다. 점수란 돈오를 떠나지 않기 위해 원수이고, 생각마다 무념수(無念修)로 닦기에 원점이다. 이 원점은 곧 신통변화의 점원(홍익중생)으로 이어진다.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61-A00008).

기존 연구는 자성정혜를 돈오돈수라 하고, 수상정혜를 돈오점수라 하여 자성정혜가 상근기에 해당하는 수행이고 수상정혜는 하근기에 해당하는 수행이라 구분하여 말해왔다. 그러나 지눌의 돈오점수를 수상정혜로만 볼 수 없다. 지눌은 돈문의 자성정혜에 기초해 점문의 수상정혜를 빌려와 자성정혜와 수상정혜를 겸비시켰음을 볼 때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지눌의 수상정혜는 깨달은 후에 닦는 것이기에 점문의 그것과 다르고, 자성정혜와 결합된 수상정혜이기에 선후가 없다. 지눌은 ‘이문정혜(二門定慧)를 선후와 차례를 나누어 두 가지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 했고, 이는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아 하나만 없어도 안 되는 것’이라 하였다. 즉 지눌의 돈오와 점수, 자성정혜와 수상정혜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이 가운데 하나가 없어도 안 되는 수행법이다. 본 연구는 ‘자성정혜(自性定慧)의 돈오’와 이에 의지해 닦는 ‘자성반조(自性返照)의 수상정혜(隨相定慧)’를 분석하여 돈오점수의 정혜쌍수가 이문정혜쌍수라는 해석을 새롭게 시도하였다.

주제어

지눌, 자성, 돈오점수, 원수, 원점, 점원, 이문정혜쌍수

I. 서론

지눌(知訥: 1158-1210)의 사상은 시대를 넘어 한국불교사상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선승이자 삼교합일의 회통적 명맥을 이루었던 득통기화, 허응당 보우, 서산 휴정 등은 사상적 측면에서 지눌의 영향을 받았고, 이들 모두가 일정부분 지눌의 사상에 연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근대 민중종교로서 창시되었던 동학(천도교)과 원불교에서도 지눌의 사상이 수용·변용되어진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만큼 지눌의 선사상은 시대를 넘어 한국사상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지눌이 강조했던 것 중의 하나는 불교가 정적(靜的)이거나 허무적멸로만 흘러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었고, 이는 조선시대 삼교합일의 사상적 전통으로 넘어와 자성(自性)의 고요함뿐만 아니라 환히 비추는 지혜의 작용에 방점을 두는 데에 일조를 가했다.

지눌은 자성을 공적영지(空寂靈知)로 설명하면서 성성적적(惺惺寂寂), 적지(寂知), 혹은 정혜(定慧)로 칭하였다. 그는 특히 정혜(定慧)를 ‘성(性)을 지칭하는 자성정혜(自性定慧)’와 ‘상(相)을 따라 수행하는 수상정혜(隨相定慧)’로 구분하였는데, 자성정혜(自性定慧)란 ‘자성 그대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깨달음의 측면에서 본 것이고, 수상정혜(隨相定慧)는 점문에서 빌려온 것으로서 자성을 깨달은 후 닦아 나가는 수행적 측면에서 본 것이다. 지눌은 모든 수행이 이 양자를 겸비한 수행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였다.

원래 자성정혜는 돈문의 수행이고 수상정혜는 깨닫기 전의 점문의 수행이다. 김호성은 지눌이 말하는 자성정혜를 돈오돈수라 하고, 수상정혜를 돈오점수라 하여 자성정혜가 상근기에 해당하는 수행이고 수상정혜는 하근기에 해당하는 수행이라 구분하여 보았다.¹⁾ 그러나 지눌은 돈문의 자성정혜에 기초해 점문의 수상정혜를 빌려와 자성정혜와 수상정혜를 겸비시켰음을 볼 때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즉 지눌의 정혜쌍수는 자성정혜를 자각하여 이로써 수상정혜를 닦는 것이므로 자성정혜와 수상정혜를 분리시킬 수 없다.

또한 지눌의 정혜쌍수가 교선일치로 이해되거나²⁾, 목조선의 수행과 유사한 것³⁾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정혜쌍수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돈오점수와 정혜쌍수의 의미를 검토하여 ‘자성정혜의 돈오’와

1) 지눌의 이문정혜에 대한 논문은 김호성의 연구가 처음이고, 이 이후로는 논문이 나오지 않았다. 본 연구는 김호성의 연구를 읽고 있으면서도 김호성과 갈라진다. 김호성의 연구가 지눌의 돈오를 해오로 보고, 돈오점수를 보리군생의 차원으로 이해한 것은 본 연구와의 연속성을 갖지만 이문정혜를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견해를 달리한다. 김호성은 자성정혜를 돈오돈수로, 수상정혜를 돈오점수로 보았다(김호성, 『보조의 이문정혜에 대한 사상사적 고찰』, 『한국불교학』 제14집(서울: 한국불교학회, 1989), p.424).

2) 김용태는 지눌이 “종밀이 주장한 선교일치론의 영향을 받아 선과 교를 병행하는 정혜쌍수를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고(김용태, 『청허 휴정과 조선 후기 선과 화엄』, 『불교학보』 제73집(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5), p.74.) 현행 고등학교교과서 대다수가 지눌의 정혜쌍수를 선교일치로 설명하고 있다. 지눌의 사상이 선교일치를 표방한 것은 맞지만 정혜쌍수가 곧 선교일치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펴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지눌의 정혜쌍수가 “목조선과 일치된 입장을 지닌 것”(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331.)이라 했고, “선교상자(禪敎相資)의 정혜쌍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131.)라 기술하고 있다.

이에 의지해 닦는 ‘자성반조의 수상정혜’를 분석하고, 돈오점수의 정혜쌍수가 이문정혜쌍수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눌이 말하는 공적영지의 자성이 성상(性相)·체용(體用)·불변수연(不變隨緣)으로 말해지는 화엄 및 기신론적 맥락을 살펴 자성의 돈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고 점수의 수행이 돈오와 어떻게 융합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예컨대 돈오란 무엇을 돈오하는 것인지? 지눌의 마음수행이 돈문의 수행인지 점문의 수행인지? 돈오와 점수가 분리될 수 없듯이 자성정혜와 수상정혜가 어떠한 맥락 속에서 서로를 아우르고 있는지? 정혜쌍수를 정과 혜의 쌍수로 보는 문자적 이해를 넘어 이문정혜(二門定慧)의 쌍수라 할 수 있는지? 정혜는 지관(止觀)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상근기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하근기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 지눌 마음 수행법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II. 무엇을 돈오(頓悟)하는가?

1. 자성의 돈오(頓悟)와 원돈(圓頓)

서양전통에서는 진리의 발견과 인간다움은 분리되지만 동양전통에서는 진리를 탐구하려면 먼저 깨달아야 하고 깨달아 수행을 하면 참된 인간성이 구현되는 것으로 본다. 진리의 깨달음과 수행, 그리고 인간성의 구현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지눌은 「정혜결사문」 서두에서 “먼저 자신의 성품이 맑고 묘한 마음임을 깨달아야 바야흐로 그 자성에 의지해 禪수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⁴⁾ 또한 중생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은 한 마음이 미혹되느냐 아니면 한 마음을 깨달아 묘한 작용을 일으키느냐에 있기에⁵⁾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깨달음이 더딜까를 두려워하라”⁶⁾하였다.

4) 『勸修定慧結社文』(H4, p.699b), “先須信解自身性淨妙心 方能依性修禪.”(본 연구에서 인용한 원전의 번역은 ‘동국역경원 역, 『보조국사집』(서울: 동국대학교 동국역경원, 1995)’을 참고하였고 일부 번역이 생략된 부분은 보완하여 인용하였다.)

5) 『勸修定慧結社文』(H4, p.698a), “迷一心而起無邊煩惱者衆生也 悟一心而起無邊妙用者諸佛也.”

깨달음이란 자성을 돈오하는 것이고, 자성이란 『기신론』으로 표현하면 수연(隨緣)과 불변(不變), 화엄으로 표현하면 성상(性相)·이사(理事)이지만 지늘이 비증을 두어 즐겨 쓴 표현은 하택이나 종밀이 말한 공적영지(空寂靈知)이다. 공적영지의 공적은 定이요 영지는 慧이다. “선정은 본체요 지혜는 작용으로 본체가 곧 작용이기 때문에 지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고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선정이 곧 지혜이기 때문에 고요하면서 항상 알고, 지혜가 선정이기 때문에 알면서 항상 고요하다.”⁷⁾ 이 ‘고요하면서 항상 아는’ 적지(寂知)는 곧 ‘무념의 지(知)’로서 ‘상지(常知)’라 불리는데, 돈오란 ‘본마음의 항상 된 앎을 돈오하는 것’으로서 이는 마치 물의 습한 성질이 변하지 않음을 아는 것과 같다. 지늘은 자성을 단순히 쉼이나 청정심이라 지칭하지 않고 ‘스스로 환히 아는’ 영묘(靈妙)·영지(靈知), 혹은 ‘스스로 항상 아는 것’, ‘진실로 아는 진여’ 그 자체가 자성임을 강조하였다.

모든 중생은 어리석고 지혜로움과 선하고 악한 구별이 없이 금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가진 심성은 항상 스스로 환히 아는데 그것은 저 목적과 다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경계를 반연하여 분별하는 알음도 아니요 또한 증오(證悟)의 지해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진여의 자성으로서 저 완고한 空과 같지 않아 그 성품이 ‘항상 스스로 아는 것’이다. 『화엄경』 「회향품」에서는 ‘진여는 비추고 밝은 것으로 그 본체를 삼는다’ 하였고 『기신론』에서는 ‘진여의 본체와 속성은 진실로 아는 것’이라 하였으며 「구나함모니불전법계」에서는 ‘부처는 그 몸은 보이지 않아도 아는 것이 곧 부처이니 만일 진실로 아는 것이 있으면 따로 부처가 없다’한 것이 바로 이 뜻이다.⁸⁾

6) 『牧牛子修心訣』(H4, p.711b), “不怕念起 唯恐覺遲.”

7) 『牧牛子修心訣』(H4, p.711c), “定是體 慧是用也 卽體之用故 慧不離定 卽用之體故 定不離慧 定卽慧故 寂而常知 慧卽定故 知而常寂.”; 定은 자성의 본체요, 慧는 자성의 작용이다. 定이 곧 慧이고 慧가 곧 定이기 때문에 작용은 본체를 떠나지 않는다.(『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748c), “定是自心之體 慧是自心之用 定卽慧故 體不離用 慧卽定故 用不離體.”)

8)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756c), “一切衆生 不揀愚智善惡 乃至禽獸 所有心性 皆自然了了 知異於木石者 且不是緣境分別之識 亦非證悟之智 直是真如自性 不同頑虛 性自常知 華嚴經回向品云 眞如照明

지눌은 자성을 공적영지, 적지(寂知), 성성적적(惺惺寂寂), 정혜(定慧)⁹⁾, 자심근본보광명지(自心根本普光明知), 상지(常知), 본성(本性), 진성(眞性), 자심(自心), 진심(眞心), 심성(心性), 일심(一心)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했다. 자성은 성상, 체용, 불변과 수연을 모두 포용하면서도 걸림이 없고, 비고 고요하면서도 신령한 묘지(妙知)를 갖추고 있다.

심성은 신령하고 묘하며 자재하여 온갖 법을 포용하였으므로 그 온갖 법은 일찍이 제 성을 떠난 적이 없어 움직이는 듯하기도 하고 움직이지 않는 듯하기도 하여 성과 상, 본체와 작용, 인연을 따름과 변하지 않음이 동시에 서로 걸림이 없다.¹⁰⁾

『기신론』에 의하면 진여자성에는 ‘큰 지혜의 광명’, ‘법계를 두루 비춤’, ‘진실로 안다’는 뜻이 있고¹¹⁾, 『신화엄경론』에서는 깨달음을 “①제 몸과 마음이 본래 법계임을 깨닫는 것, ②제 몸과 마음의 분별하는 성품이 본래 능소(能所)가 없는 부동지(不動智)의 부처임을 깨닫는 것, ③자심이 정사(正邪)를 잘 가리는 묘한 지혜임을 깨닫는 것”¹²⁾이라 하였다. 자성이란 본래법계로서 능소가 없는 부동지(不動智)이자 큰 지혜의 광명이며 진실된 앎으로서 심신의 ‘바름과 샅됨’을 잘 가리는 묘한 지혜를 말한다.¹³⁾ 돈오란 바로 이 ‘묘지’의 자성¹⁴⁾을 깨

爲體 起信論云 眞如體相 眞實識知 拘那含佛傳法偈云 佛不見身知是佛 若實有知別無佛等 是其意也.”

- 9) 지눌은 定慧를 惺寂이라 했고 惺寂은 곧 寂知라 했다.(『勸修定慧結社文』, p.703a, “今言唯寂唯知 惺惺寂寂也.”) 그러므로 寂知는 곧 空寂知, 혹은 空寂靈知를 지칭한다.
- 10) 『勸修定慧結社文』 (H4, p.703a), “以心性靈妙自在 含容萬種法 萬法未嘗離自性 如轉如不轉 性相體用 隨緣不變 同時無碍.”
- 11) 『圓頓成佛論』 (H4, p.728c), “起信論云 眞如自性 有大智慧光明義故 遍照法界義故 眞實識知義故.”
- 12) 『華嚴論節要序』 (H4, pp.767c-768a), “(又闍李長者所造華嚴論釋十信初位云) 覺首菩薩者有三 一覺自身心 本是法界自淨無染故 二覺自身心分別之性 本無能所 本來是不動智佛 三覺自心善簡擇正邪妙慧.”
- 13) 정혜정, 「지눌의 깨달음의 마음공부」, 『한국교육사학』 제37권-3호(서울: 한국교육사학회, 2015), p.59.
- 14) 김희성은 지눌의 공적영지를 “하느님의 근저와 인간 영혼의 근저가 지성에서 완전히 하나”라는 맥락에서 ‘지성(知性)’으로 이해하고,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기독교 신비주의의 ‘신성(神性)’처럼 “공적영지와 지성 모두 영원불변의 실재”로 간주하기도 한다.(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마음과 철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pp.355-358.) 지눌이 말하는 공적영지는 쉼을 전

닫는 것이다.

또한 돈오(頓悟)¹⁵⁾란 곧 원돈(圓頓)이자 신해(信解)이다. 화엄에서 원돈은 “이치가 모두 원만히 갖추어진 것”¹⁶⁾을 말하는데, 지눌의 원돈이란 “원만히 깨닫는 자심(自心)의 성상체용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¹⁷⁾ 이는 “망념을 버리고 참을 취하는 점차의 법이 아니라, 여래의 비밀한 원돈의 법”¹⁸⁾이다. 원(圓)이란 진리가 두루 원만하여 모자람이 없는 총만함을 의미하고, 돈(頓)이란 “좋은 벗을 만나 성상, 체용, 불변수연의 이치를 듣고 곧바로 영명지견(靈明知見)이 스스로의 참 자성임을 홀연히 깨닫는 것”¹⁹⁾을 말한다. 지눌의 원돈신해 문은 한 생각을 깨달아 이해하는 문으로서 禪의 ‘깨달음(悟)’과 이통현의 ‘믿음(信)’을 동일시하였고, ‘信’이 궁극적 목표인 성불(成佛)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의 추진력이자 출발점이 되는 것처럼 ‘깨달음(悟)’ 역시 수행을 돕기 위한 지적인 기초이자 계속되는 점수의 출발점이다.²⁰⁾ 최연식은 지눌의 원돈신해 문을 ‘이통현의 화엄교학과 선종의 결합, 즉 근본보광명지(根本普光明智)와 영지(靈知)의 결합인 선교융합’ 사상으로 보고 있다.²¹⁾ 보다 엄밀히 말하면 지눌의 자심근본보광명지는 기신론의 체상용 삼대와 화엄의 이사(理事), 그리고 선종이 결합된 선교일치적 성격을 띠다 할 수 있다.²²⁾ 그러므로 선교일치를 정혜쌍수라 말하기보다는 돈오의 원돈신해적 성격을 선교일치라고 말하

제하기에 기독교와의 구분도 가능하지만 眞我, 靈知라 부르기에 실재성도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5) 성철은 지눌의 해오가 알음알이(知解)라고 했지만 ‘한 생각을 빛으로 돌이켜 자기 본성을 보는 것(一念回光 見自本性)’이고 ‘심신불이(心身不二)의 차원’에서 얻어지는 전인적 전회이기에 지눌의 해오는 지해(知解)로 볼 수 없다(김호성, 「돈오점수의 새로운 해석: 돈오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제15집(서울: 한국불교학회, 1990), pp.434-444).
- 16)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762c), “彼約所詮義理 無不圓具故.”
- 17)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p.762c-763a), “彼約所詮義理 無不圓具故 此約得入門 圓悟自心性相體用故.”
- 18)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762c), “以非捨妄取眞漸次之法 故名如來秘密訣 亦名如來圓頓制.”
- 19)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746a), “若遇善友 爲說如上 不變隨緣性相體用之義 忽悟靈明知見.”
- 20) 심재룡, 「한국 선불교의 철학적 연구」, 『철학논구』 제13집(서울: 서울대학교 철학과, 1985), p.117.
- 21) 최연식, 「지눌 선사상의 사상사적 검토」, 『동방학지』 제144집(서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8), pp.156-160.
- 22) 정혜정, 앞의 논문, p.61.

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2. 자성의 두 가지 작용과 영통(靈通)

자성의 돈오란 고요하고 신령한 앎이 비추이고 있음을 깨닫는 것인데, 자성의 작용에는 ① 자성의 근본작용[自性本用]과 ② 인연을 따르는 작용[隨緣應用], 두 가지가 있다. 이를 청동거울에 비유하면 청동의 바탕은 자성의 본체이고, 청동의 밝음은 자성의 작용이며 밝음이 나타내는 그림자는 인연을 따르는 작용이다. 즉 마음이 항상 고요한 것은 자성 본체의 마음이고, 항상 아는 것은 자성의 작용이며 그 알음이 능히 말하고 분별하는 것은 인연을 따르는 작용이다.²³⁾ 여기서 지눌이 말하는 핵심은 자성의 근본작용이 인연에 따르는 작용, 즉 수연응용과 결합된다는 것이다. 자성인 공적영지의 작용은 능히 알음과 지혜를 내어 범인도 되고 성인도 되며 선도 짓고 악도 지어서 법상에 따라 갖가지로 작용·변화한다.

공적영지는 비록 분별하는 알음도 아니고, 닦아 깨닫는 지혜도 아니지만 능히 알음과 지혜를 내어 범부도 되고 성인도 되고 선을 짓고 악도 지어서 따르고 어긋나는 작용이 갖가지 형세로 변한다. 그 까닭은 체가 지이기 때문에 능히 일체의 시비호오 등을 분별하는 것이다. ... 능히 아는 마음은 잠시도 끊어짐이 없어 담연히 항상 고요한 것이니 미혹했을 때에는 마음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지만 깨달으면 그 마음의 일어남이 없음을 알 뿐이다.²⁴⁾

자성의 작용은 분명 청정만을 전제하지 않는다. 망념[무명] 역시 자성의 작

23)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745c), “眞心本體 有二種用 一者自性本用 二者隨緣應用 猶如銅鏡 銅之質是自性體 銅之明是自性用 明所現影是隨緣用 影即對緣方現 現有千差 明即常明 明唯一味 以喻心常寂 是自性體心常知 是自性用 此知能語言 能分別等 是隨緣用.”

24)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757a), “空寂靈知 雖非分別之識 亦非證悟之智 然亦能生識之與智 或凡或聖造善造惡 順違之用 勢變萬端 所以然者以體知故 對諸緣時 能分別一切是非好惡等 ... 能知之心無有間斷 湛然常寂是知迷時 謂心爲動 悟則知心無起耳.”

용이다. 자성은 “삼대(三大)와 성상(性相)과 이사(理事)의 덕을 갖춘 것”²⁵⁾으로서 선악염정의 갖가지 작용으로 변한다. 자심보광명지(自心普光明智)라 부르는 이 자성은 “그 양이 법계나 허공계와 같고, 성질과 작용이 자재하여 하나도 되고 여럿도 되며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며 중생도 되고 부처도 되며 자기도 되고 남도 되며 나타나기도 하고 숨기도 하며 말기도 하고 펴기도 하며 거슬러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며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며 더러워지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한다. 이 불가사의한 큰 광명의 여래장은 모든 법을 다 포섭하여 온갖 변화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²⁶⁾ 이는 마치 고요한 물에 물결이 생기면 그 물결 전부다 물인 것과 같고 허공에 꽃이 생기면 그 꽃 전부다 허공인 것과 같다.

지눌은 모든 붓다의 근원을 알려거든 제 무명이 본래 부처임을 깨치라 하였다. 무명은 누구나 갖추고 있고 이 역시 본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며 또한 본래 쏠한 것이기에 본래의 지혜, 집착 없는 지혜로 다시 돌아가면 억제함도 끊음도 없다. 즉 이치의 옳음을 가리어 결택하면 “망상이 없어져 마음이 영통하고, 신통광명의 작용을 내기 시작한다”²⁷⁾는 것이다. 이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인연을 따르면서도 자성의 근본작용을 어떻게 나타내느냐를 주된 핵심으로 삼는 것이다. 즉 자성을 반조하여 자성의 근본작용이 수연용의 경계에 떨어지지 않고, 이를 통해 자성용(근본작용)이 나타나게 하는 것에 있다. 지눌은 이를 영통(靈通)이라 불렀다. “마음이 사물에 응해 항상 눈앞의 인연을 따르면서도 영통하여 중일토록 변하지 않는 덕”²⁸⁾이 곧 자성본용(自性本用)의 발휘이고, ‘깨달은 지혜가 항상 밝고, 깨끗한 행을 닦아 큰 서원을 세워 중생을 두루 건지면’²⁹⁾ 이것이 자성반조의 보리군생(普利群生)인 것이다. 지눌의 돈오점수는 깨달음(견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자성의 작용까지 나

25) 『圓頓成佛論』 (H4, p.731b), “故云欲知一切諸佛源 悟自無明本是佛 以本智佛 自具三大性相理事之德故.”
 26) 『圓頓成佛論』 (H4, p.726b), “以自心普光明智 量同法界虛空界 相用自在能一能多 能大能小 能生能佛 能自能他 能現能隱 能卷能舒 能逆能順 能善能惡 能染能淨 是不思議大光明藏 含攝諸法 爲萬化之源.”
 27) 『勸修定慧結社文』 (H4, p.699c), “而復勤加決擇邪正 … 妄盡則心靈通 始發通光之應.”
 28) 『勸修定慧結社文』 (H4, p.703c), “靈通應物 常在目前 終日隨緣 而終日不變之德.”
 29) 『勸修定慧結社文』 (H4, p.699b), “覺慧常明 精修梵行 發弘誓願 廣度群品.”

가야 한다.³⁰⁾

허깨비와 같은 자비와 지혜를 활용하여 허깨비와 같은 중생을 제도하면 깨달음과 행이 마음대로 운영되어 작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리니 여찌 한 평생이 기쁘고 유쾌하지 않겠는가.³¹⁾

III. 돈오에 의지하는 점수(漸修): 원수(圓修)·원점(圓漸)·점원(漸圓)

1. 돈오에 점문의 수행을 아우름

돈오란 ‘미혹을 따르나 깨달은즉 돈오’라 하는 것이고, 점수란 ‘범부가 성인(聖人)으로 전환되는 것’³²⁾이다. 돈오점수라는 말 자체는 예나 지금이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지눌은 청량의 것을 비판하고 종밀과 하택의 것을 지지하면서 자신의 독자적인 돈오점수론을 개척해나갔다고 볼 수 있다. 청량은 깨달음을 닦음에 종속시켜 점문을 세웠지만 종밀은 닦음을 깨달음에 종속시켜 돈문을 세웠다.³³⁾

자성인 ‘공적영지’를 깨달아서 생각마다 자심을 반조하고, 자성(비고 고요 하면서도 신령한 앎)에 계합하여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게 되면 그것이 곧 돈문의 돈오점수이다. 자성을 비추면 근본을 따라 자성이 열려 명명청정해지고, 번뇌란 공한 것이기에 다시 깨달은 지혜로 비추어 정사(正邪)를 결탁하고 널리 중생을 돕는 것이다.³⁴⁾

30) 영통은 곧 자신의 본성을 지키고, 생각마다 자성을 비추어 보아 근본을 따르면 본래 신령하고 밝고 맑은 깨끗한 본성의 작용이 자연히 중생을 이롭게 함을 말한다.

31)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757c), “運如幻悲智 度如幻衆生 任運覺行 不作而成 豈不慶快平生也.”

32)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746a), “從迷而悟即頓 轉凡成聖即漸.”

33)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749b), “清涼以悟從修 立於漸門 圭峰以修從悟 立於頓門.”

34) 『勸修定慧結社文』(H4, p.699b), “照見自心 從本而來 靈明清淨 煩惱性空 而復勤加決擇邪正 不執己見 心無亂想 不有昏滯 不生斷見 不着空有 覺慧常明 精修梵行 發弘誓願 廣度群品.”

지눌은 “정혜이문(定慧二門)에 의지하기에 자심을 반조하고 믿음과 얹어 참되고 발라서 단(斷)과 상(常)에 떨어지지 않는다.”³⁵⁾고 하였다. 정혜에는 자성정혜(自性定慧)와 수상정혜(隨相定慧) 두 가지가 있는데, 이는 성성적적(惺惺寂寂)의 뜻으로서 생각을 떠난 마음의 본체에 대하여 말한 것이자 공부를 쌓는 수행법을 지칭하는 설명이기도 하다.³⁶⁾ ‘믿음과 얹어 참되고 바름’은 돈오로서 자성정혜의 돈오에 해당하고 ‘자심반조’는 수상정혜이자 점수에 해당한다. 지눌이 말하는 돈오점수는 자성정혜와 수상정혜의 견비로서 자성정혜는 자성을 깨달은 이치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고, 수상정혜는 수행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다.

원래 자성정혜는 돈문이고 수상정혜는 점문이다.³⁷⁾ 그러나 지눌은 돈문의 정혜에 바탕을 두되, 점문의 수상정혜를 차용하였다. 이 때 수상정혜는 점문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한다. 지눌의 돈오점수는 자성정혜의 돈오에 의지한 수상정혜의 점수이다. 기존 연구는 지눌이 자성정혜문을 돈오돈수로, 수상정혜문을 돈오점수로 나누었고, 자성정혜와 수상정혜를 각각 상근기와 하근기가 닦는 것으로 나누어 보았다.³⁸⁾ 그러나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자성정혜는 심성 그대로의 문으로서 닦을 필요가 없이 오직 깨달으면 된다. 그러나 돈오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수행이 필요 없는 돈오돈수가 아니라 돈오점수이다. 종밀은 “돈오돈수라는 것도 여러 생 동안 차츰 혼습되어 나타난 것이기에 현재에 숭상할 것은 오직 돈오점수”³⁹⁾라 하였고, 지눌 역시 돈오돈수가 최상근기의 수행이지만 이 역시 생을 거듭하여 닦은 결과로 보기 때

35) 『勸修定慧結社文』(H4, pp.699c-700a), “先須返照自心 信解眞正 不落斷常 依定慧二門 治諸心垢 卽其宜矣.”

36) 『勸修定慧結社文』(H4, p.702b), “此中惺惺寂寂之義 或直約離念心體 或約用功門說之 故修性俱圓 理行兼暢 修行徑路 莫斯爲最.”

37) 자성정혜는 남종의 삼학이고 수상정혜는 북종의 삼학이다. 혜능은 ‘自性自悟, 頓悟頓修, 亦無漸次’라 하여 깨침이란 돈오이자 돈수라 했다.

38) 김호성, 「돈오점수의 새로운 해석: 돈오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제15집(서울: 한국불교학회, 1990), p.424; 강건기, 「지눌의 돈오점수 사상」, 『인문논총』 제15집(전주: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85), pp.57-58 등.

39)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750b), “圭峯非唯明悟後漸修 亦有頓悟頓修門 辦事頓畢之說 然判云此是多生漸熏發現也 … 今之所尙頓悟漸修者.”

문에 돈오돈수에 비중을 두지 않았다.⁴⁰⁾ 이는 ‘병이 없으면 약을 구할 것도 없기에’⁴¹⁾ 수행론을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돈오돈수만을 우위에 두어 자성정혜와 수상정혜를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지눌이 돈오점수를 주목하여 돈문의 자성정혜와 점문의 수상정혜를 어떻게 융섭시켰는지를 통찰해야 할 것이다.

지눌은 점문 수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어리석음을 안고 가만히 앉아 분별없음만을 본받아 이를 대도(大道)로 삼는 것”⁴²⁾이라 했고, “현재의 더러움을 씻어 창자 깨끗해질 것이라 하여 본래의 묘한 마음은 보지 않고, 스스로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부질없이 점차의 행을 닦는 것”⁴³⁾이라 하였다. 또한 점문의 정혜라는 것도 ‘寂寂으로써 산란한 생각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惺惺으로써 흥미한 정신을 다스리는 것이기에 비록 성성과 적적을 고루 가지는 것이라 말하지만 두 가지는 선후와 점차가 있고 또한 정(靜)을 취하여 행을 삼기 때문에 집착과 자타의 관념을 떠나지 못한 것’이라 하였다.⁴⁴⁾

반면 돈문의 수행은 선정과 지혜가 바로 자성 가운데의 두 가지 뜻이기에 능소의 관념이 없고, 다만 스스로 깨닫는 수행이기에 선후가 없으며 선후가 없기에 법아가 없는 것이라 하였다.⁴⁵⁾ 이러한 돈문에 점문의 수행을 융합시킨 장본인이 바로 종필이다. 그는 점문의 점수라는 용어를 가져다 돈문에 붙였지만 그것은 번뇌를 끊고자 한 점수가 아니요 또한 단지 단박에 끝나는 무념수(無念修)를 취한 것도 아니다.⁴⁶⁾ 지눌의 돈오점수 역시 돈문에 점문의 점수를 빌려와

40) 돈오돈수(頓悟頓修)하는 자도 과거의 여러 생(生) 동안 깨달아 닦은 수행으로 현생에서 단번에 모두 마친 것이기에 이 역시 깨닫고 뒤에 닦는 근기이다.

41) 『牧牛子修心訣』(H4, p.713a), “何假隨相門對治之義也 無病不求藥.”

42) 『勸修定慧結社文』(H4, p.703b), “不可端居抱愚 效無分別 而爲大道.”

43) 『勸修定慧結社文』(H4, p.703b), “現今治其染 當來得其淨 不觀本妙 自生艱阻 而勞修漸行.”

44)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748b), “且漸宗觀心門 先以寂寂 治於緣慮 後以惺惺 治於昏住 … 雖云惺寂等持 以二義屬功行門故 有先後漸次 亦是取靜爲行 故不離法愛人我之相”.

45)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748b), “頓宗所修定慧 卽自性中二義 無能所觀 但自悟修行故 無先後 … 無法我”.

46)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749c), “圭峰取漸宗漸修之言 屬於頓門者 且非見有煩惱可斷之漸修 又非但取無念修 功不頓畢 且言漸修.”

아우른 것으로서 이 역시 종말과 맥락을 같이 한다.

2. 돈오점수의 원수(圓修)·원점(圓漸)·점원(漸圓)

지눌의 돈오점수는 제 마음이 바로 부처의 근본임을 깊이 믿어[돈오], 정혜를 관조하는 힘으로 출발하는 것인데⁴⁷⁾, 이 점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깨달음에 의지해 닦는 것」과 「생각마다 백천삼매를 닦는 것」이 그것이다.⁴⁸⁾

깨달은 후 닦는 점수에는 두 가지 이치가 있으니, 첫째는 ‘이것(깨달음)에 의지해 닦는다’의 이하는 ‘자심(自心)은 본래 번뇌가 없다는 뜻에 의지한 것으로서 살필 것도 말할 것도 없이 텅 비어 도에 합하여 닦는 것’이다. 이를 근본일행삼매라 한다. … 둘째는 ‘능히 생각마다’ 이하는 근본삼매로 말미암아 고요한 앎에 맡겨져 온갖 행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비와 서원이 서로 도움으로써 생각생각에 백천 삼매를 닦아 익히는 것이다. 몸과 지혜와 신통의 광명이 차츰 자재롭게 되어 마치 노사나 부처와 같이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 하택중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일 좋은 벗을 만나 깨우침을 받고, 공적의 앎을 단박 깨달으면 생각도 없고 형상도 없음을 알 것이니 무엇이 나가 되고 남이 되겠는가. 모든 형상이 공임을 깨달으면 마음은 스스로 무념이 되고, 생각이 일어난즉 곧 깨닫고, 깨달으면 곧 없어지는 것이다. 수행의 묘한 문은 오직 여기에 있다.’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깨달은 뒤의 생각 없이 닦는 무념수(無念修)이다. 하택은 또 ‘비록 만행을 닦아 갖춘다 하더라도 오직 생각 없음(無念)으로써 으뜸을 삼는 것이니 무념인즉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자연 없어지고 자비와 지혜가 자연히 자라고 밝아진다. 또한 사물에 따라 응하는 작용이 무궁함에 이를 것이니 이를 이름하여 부처’라 하였다. 이것이 바로 근본일행삼매를 떠나지 않고 자연히 차츰 백천 삼매를 얻어 중생을 두루 제도한다는 뜻이다.⁴⁹⁾

47) 『勸修定慧結社文』(H4, p.703b), “深信自心 是諸佛本源 以觀照定慧之力 出發之”.

48)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749c), “頓悟自心 本來清淨 … 依此而修者 是最上乘禪 … 亦名一行三昧 亦名眞如三昧 此是一切三昧根本 若能念念修習 自然漸得百千三昧”.

49)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p.749c-750a), 悟後修門有二義 初依此而修下 是依自心本無煩惱之義 不

「깨달음에 의지해 닦음」은 그 깨달은 자성에 계합하여 자재한 수행이 되므로 근본일행삼매라 지칭되고, 「생각마다 백천삼매를 닦음」은 근본삼매로 말미암아 공적지에 맡겨져 생각마다 온갖 행이 여기서 일어나므로 백천삼매를 얻는 무념수(無念修)라 칭해진다. 자성청정과 번뇌의 공함을 깨닫기에 마음이 저절로 무념이 되고, 이 무념을 근본삼아 만행을 닦기에 이를 일행삼매, 진여삼매, 혹은 근본삼매라 하는 것이다.⁵⁰⁾ 이는 오염이 없는 수행일 뿐만 아니라 만행을 점차 닦아 자타를 아울러 제도하는 수행이다.⁵¹⁾ 요컨대 지눌의 마음수행은 비록 혼침과 산란을 떠나는 삼매를 방편삼지만 반연하는 생각의 분별이 바로 자성(眞性) 가운데서 일어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청정한 그대로의 자성에 맡겨 ‘취하거나 거두어 잡는 상이 없는 무념의 수행’이다. 또한 바깥 인연의 역경이나 순경을 당하더라도 오직 마음인 줄을 밝히 알기에 자타·능소가 없는⁵²⁾ 원만한 수행이라 할 것이다.

다시말해 지눌의 돈오점수는 깨달은 제 마음의 참 법계의 원만한 작용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원수(圓修)이고⁵³⁾, 만행을 닦음에 오직 무념을 근본으로 삼아⁵⁴⁾ 생각마다 백천삼매를 행하는 무념수이기에 원점(圓漸)이다.⁵⁵⁾ 또한 이 원점은 곧 신통변화의 보리군생(普利群生)인⁵⁶⁾ 점원(漸圓)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마치 얼음이 녹아 물이 차츰 풍족히 흘러 씻는 공덕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 깨

看不澄 曠然合道 任運修也 是謂根本一行三昧 亦是清涼所立頓修也 次若能念念下 從根本三昧 任運寂寂 衆行爰起故 悲願相資 念念修習百千三昧 身智通光 漸漸自在 普利群生 同盧舍那佛 錄中所立漸修 正謂是也 … 如荷澤宗云 若遇善友開示 頓悟空寂之知 知且無念無形 誰爲我相人相 覺諸相空 心自無念 念起即覺 覺之即無 修行妙門 唯在此也 此正是悟後無念修也 又云雖備修萬行 唯以無念爲宗 但得無念 則愛惡自然淡薄 悲智自然增明 乃至應用無窮 名之爲佛 此正是不離根本一行三昧 自然漸得 百千三昧 廣度群品之意也.

- 50)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H4, p.749c), “頓悟自心 本來清淨 元無煩惱 無漏智性 本自具足 此心即佛 畢竟無異 依此而修者 是最上乘禪 … 亦名一行三昧 亦名眞如三昧 此是一切三昧根本.”
- 51)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H4, p.755b), “宣揚悟後漸修之門爾 此悟後修門 非有不污染 亦有萬行熏修 自他兼濟矣.”
- 52) 『勸修定慧結社文』(H4, p.704b), “雖有方便三昧 離昏散之功 以知緣慮分別 是眞性中緣起故 任性淨而無取攝之相 雖涉外緣違順之境 爲了唯心 無自他能所故.”
- 53)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H4, p.750a), “以不離本所悟 自心眞法界之圓修故.”
- 54) 『牧牛子修心訣』(H4, p.711b), “雖備修萬行 唯以無念爲宗.”
- 55)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H4, p.750a), “念念修習百千三昧 … 此是圓漸 非漸圓也.”
- 56)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H4, p.750a), 身智通光 漸漸自在 普利群生 同盧舍那佛.

달았다고 해서 홍익중생의 이타행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뒤의 차별지로 중생들의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자비와 서원의 마음을 내어 제 힘과 분수를 따라 보살의 도를 행해야 각행이 점점 원만해지는 것이다.”⁵⁷⁾

이 깨달은 뒤의 신통변화의 작용에는 평등과 차별의 두 가지 이치가 있다. 평등의 변화는 단박 나타나는 반면, 차별의 변화는 차츰 원만해진다.⁵⁸⁾ 여기서 단박 나타나는 평등의 변화는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고 나와 남의 차별이 없음을 보는 것”⁵⁹⁾으로서 이는 곧 자심의 일진법계(一眞法界)가 작용하는 동체대비라 할 것이다.⁶⁰⁾ 또한 차별의 변화는 신통의 변화를 말하는데, 이는 적정(寂靜)에 머무르지 않고⁶¹⁾ 차별지⁶²⁾의 지혜가 중생의 근기에 응하여 점차 “신통변화가 걸림이 없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⁶³⁾이다. 신통변화 역시 지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행의 한 차원으로서 각행의 점원(漸圓)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만한 각행으로 신통변화가 막힘없이 ‘두루 중생을 이롭게 해[普利群生]’ 성불(成佛)인 것이다. 성불은 견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정혜로 심신을 돕고 훈련하여 점점 자유롭게 되고 내지 신통 변화가
걸림이 없어 중생을 두루 이롭게 하면 이름 하여 붓다라 한다.⁶⁴⁾

-
- 57)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p.755b-c), “悟解後 以差別智 觀衆生苦 發悲願心 隨力隨分 行菩薩道 覺行漸圓.”
- 58)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755c), “此悟後化用 有平等差別二義 平等化頓現 而差別化漸圓 居然可知矣.”
- 59)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755c), “明見佛性 則但生佛平等 彼我無差.”
- 60) 지눌은 자심의 근본보광명지를 일진법계(一眞法界)라 일컬었는데(『圓頓成佛論』(H4, p.726b), “返照自心根本普光明智—眞法界之道”), 일(-)이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라 하고, 망념됨이 없기 때문에 진(眞)이라 하며 상호 융합하기 때문에 법계(法界)라 일컫는다. 보광명지를 깨달아 알면 중생과 부처가 하나로 융합하고, 시방 세계가 하나로 융합하기에(『圓頓成佛論』(H4, p.731c), “悟解普光明智中 生佛圓融故 謂他果在我亦得 十世圓融故 謂當果自有亦得.”) 이는 곧 동체대비의 깨달음이라 할 것이다.
- 61)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755c), “若不發悲願 恐滯寂靜.”
- 62) 차별지(差別智), 즉 차별의 지혜란 근본보광명지[자성]의 작용[本用]을 뜻한다.(『圓頓成佛論』(H4, p.731b), “差別智者 且約根本普光明智 舉體運爲之用言之.”
- 63)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763a), “乃至神變無碍 普利群生.”
- 64)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763a), “戒定慧資熏身心 漸漸自在 乃至神變無碍 普利群生 名之爲佛.”

지눌의 마음 수행은 깨달음에 의지하고, 성품의 원만한 작용을 이루어 흥의 증생하는 데까지 나아가만 성불한 것이 된다.⁶⁵⁾ 지눌의 돈오점수 성불론은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수로 원만행을 점차 이룰 때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눌의 돈오점수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이 가운데 하나가 없어도 안 되는 수행”⁶⁶⁾이고, 원수(圓修)·원점(圓漸)·점원(漸圓)을 성불의 과정으로 삼는 수행이다.

〈표 1〉 지눌 마음수행법의 특징과 점문의 수행 비교

지눌의 돈오(頓悟)에 의한 점수(漸修)의 성불		
깨달음을 떠나지 않는 수행: 圓修	만행(萬行)을 무념으로 닦는 수행: 圓漸	점차 각행이 원만해짐: 漸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오에 의한 닦음 • 자성정혜에 합도 (眞如三昧) • 불리자성(不離自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마다 무념(無念)의 백천삼매로 닦음 • 자성반조(自性返照) • 자타불이의 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근기에 따른 지혜의 작용과 신통 변화의 보리군생(普利群生)
점문의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심을 돌아보아 깨닫지 않고 스스로 어렵다하여 점수만을 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定, 寂寂)과 혜(慧, 惺惺)에 분리와 선후, 점차를 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靜만을 취하고 집착과 자타의 관념을 떠나지 못하여 광도군품으로 나가지 못함

IV. 돈문(頓門)의 이문정혜쌍수(二門定慧雙修)

1. 돈문의 자성정혜에 점문의 수상정혜를 아우름

선정과 지혜는 모든 경논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지만 그 개념과 맥락은 쓰는 사람마다 다양하다. 청량은 “선가에서 말하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감박이는 작용을 끌어와서 이것은 선정과 지혜의 두 가지 이치에 통한 것”⁶⁷⁾이라 말한 바 있지만 지눌은 이를 두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교의

65) 『勸修定慧結社文』(H4, p.702c), “約煩惱都盡 功行圓滿 成佛之時 名爲菩提涅槃 菩提 梵語 此云覺 卽是知也 涅槃 梵語 此云寂滅 卽是寂也.”

66) 『牧牛子修心訣』(H4, p.711b), “頓悟漸修之義 如車二輪 闕一不可.”

별전의 작용을 알지 못하고 정혜를 말한 것으로서 사람들을 의리(義理)의 작용에 떨어뜨리고 미혹시켜 신령한 기틀을 없애는 것⁶⁸⁾이라 하였다. 말에 의해서만 이해하고 몸을 전환시키는 길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중일토록 관하여도 갈수록 지혜의 속박을 받아 설 때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청량은 선가에서 ‘생각도 없고 닦음도 없으며 자취를 떨어 버리고 이치를 나타낸다.’는 말을 끌어와 이를 선정의 문에 붙이고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관한다.’는 것은 지혜의 문에 붙였지만⁶⁹⁾ 이 역시 지눌에 의해 지적되었다. “선문에는 북종의 정혜에나 점차와 선후가 있지 돈종에는 선후가 없는 것이고, 더구나 이를 분리시켜 하나만 닦는 형식은 있을 수 없다”⁷⁰⁾는 것이다. 청량이 말하는 정혜는 분리와 선후, 점차가 개입되어 있는 점문의 수상정혜이다.

북종은 점문을 취하여 먼저 적적(寂寂)으로써 산란한 생각을 다스린 후 성성(惺惺)으로써 흥미한 정신을 다스리는 것으로 선후를 두었다. 이는 정혜병진의 관심법이라 할 것이다. 지눌은 이 점문이 “다만 고요함(靜)으로 행을 삼을 뿐”⁷¹⁾, 이를 통해서는 깨달아 들어가기 어렵다고 보았고, 정혜의 선후를 말한다는 것도 이미 자성을 객관화시키는 것이고 분별의 지혜(知解: 알음알이)가 끼어드는 것이라 하였다. 점문의 수상정혜는 깨치기 전의 것으로 마음 마음마다 의혹을 끊고 고요함만을 취하는 하근기의 공부로 인식된다.

반면 돈문의 자성정혜에서 정과 혜는 이미 하나이고 이름지어 구별할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는 근본성품의 체용이다. 일찍이 혜능은 자성정혜를 말하여 “도를 배우는 사람은 먼저 선정에 들어 지혜를 낸다거나 먼저 지혜를 닦아 선정을 낸다고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곧 법에 두 가지 모양이 있게 된다.”⁷²⁾는 것이다.

67)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748b), “又引禪門揚眉瞪目之作用云 此通定慧二義.”

68)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748b), “不知教外傳心之旨 說是定是慧 則豈非令他墮於義用 迷却神機也.”

69)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748a), “又引禪門 無念無修 拂迹顯理等 屬於定門 看心觀心等 名慧門.”

70)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748a), “禪門 唯北宗定慧 有漸次先後之義 頓宗全無單修之相.”

71)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748b), “亦是取靜爲行 故不離法愛人我之相.”

72)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748a), “曹溪云 ... 學道之人作意 莫言先定發慧 先慧發定 作此見者 法有二相.”

지눌은 능오(能悟), 소오(所悟)하는 修治의 문은 번뇌를 떠나는 점문의 정혜에 속하고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어 능소의 관념을 떠난 것은 돈문의 자성정혜라 이름 했다.⁷³⁾ 그러므로 지눌은 돈문의 자성정혜와 점문의 수상정혜는 담박과 점차가 각각 다르므로 양자를 서로 혼동하지 말라 하였다.⁷⁴⁾ 그런데 문제는 지눌이 돈문의 자성정혜에 점문의 수상정혜를 결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지눌 생전의 수행자들도 이해에 혼동을 일으킨 바 있다. 만일 자성정혜문을 먼저 의지한다면 이미 걸림없이 고요하고 알기 때문에 다시 다스릴 공부가 필요 없을 것이고, 반대로 먼저 수상정혜문에 의해 다스리는 공부를 이룬 뒤에 자성정혜문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점문의 깨치기 전의 ‘점차 익힘’이니 이는 단박 깨쳐 뒤에 닦는 것이 아니게 된다. 또한 만약 양자가 동시적인 것이어서 자성정혜와 수상정혜가 선후가 없다면 각각 단박과 점차가 다른데 어떻게 한꺼번에 아울러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혹이다. 이는 곧 돈오점수문이 어떻게 자성정혜와 수상정혜를 아울러 해석하는 것인지를 지눌에게 다시 묻는 물음으로 귀결되었다.⁷⁵⁾

이에 지눌은 자성정혜는 돈문(頓門)이고, 수상정혜는 점문(漸門)으로서 돈오점수란 돈문의 자성정혜에 점문인 수상정혜를 취한 것이라 설명한다. 즉 “깨친 뒤에 수행하는 문에 상을 따르는 문을 융섭하여 말할 것이고, 그러면서도 점문의 수행을 그대로 취한 것이 아니라 마치 길을 빌리고 숙소를 의탁함과 같이 방편을 빌려온 것 뿐”⁷⁶⁾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돈문(頓門)에도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는) 근기가 뛰어난 이가 있고 또 근기가 모자라는 이도 있으

73)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747c), “以有能悟所悟修治之門 屬於漸宗 離垢定慧 以心地無癡無亂 離能所觀 名頓宗 自性定慧.”

74) 『牧牛子修心訣』(H4, p.712c), “修隨相門定慧者 此是未悟前漸門劣機 用對治之功 心心斷或 取靜爲行者 而此二門所行頓漸各異 不可參亂也.”

75) 『牧牛子修心訣』(H4, p.712b-c), “就此兩門定慧 不無疑言 若言一人所行也 爲復先依自性門 定慧雙修然後 更用隨相門對治之功也 爲復先依隨相門 均調昏亂然後 以入自性門也 若先依自性定慧 則任運寂知 更無對治之功 何須更就 隨相門定慧也 … 若先以隨相門定慧 對治功成然後 趣於自性門 則宛是漸門中 劣機悟前漸熏也 豈云頓門箇者 先悟後修 用無功之功也 若一時無前後 則二門定慧 頓漸有異 如何一時並行也 … 二門之機 頓漸不同 優劣皎然 云何先悟後修門中 並釋二種也 請爲通會 令絕疑情.”; 정혜정, 앞의 논문, p.67.

76) 『牧牛子修心訣』(H4, p.712c), “然悟後修門中 兼論隨相門對治者 非全取漸機所行也 取其方便 假道托宿而已.”

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⁷⁷⁾

지눌의 정혜쌍수는 분명 자성정혜에 바탕을 두면서도 점문의 수상정혜를 아우른 돈문의 수행이다. 이 돈문의 점수는 자심이 항상 적적하고 성성함을 곧 바로 알아 이에 의지하여 닦기에 비록 만행(萬行)을 닦더라도 오직 무념(無念)으로 종(宗)을 삼고 무작(無作)으로 근본을 삼는다. 무념·무작이기 때문에 시간과 지위에 점차의 수행이 없고 또 법이니 뜻이니 하는 차별의 견해도 없어⁷⁸⁾ 반연을 일으키지 않고 실상에 상응한다. 즉 성성적적, 공적영지한 정혜의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번뇌가 본래 공함을 깨달아서⁷⁹⁾ 이에 의지하여 수행하기에 자성[자성정혜]과 수행[수상정혜]이 동시에 원만하고 정혜의 분리·선후가 없으며, 이치와 실행이 모두 통해지는 것이다.⁸⁰⁾

요컨대 지눌의 정혜쌍수는 수상정혜로 먼저 혼침과 산란을 다스린 뒤에 자성정혜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성정혜문을 먼저 의지하여 단박 끝나는 돈수(頓修)도 아니다. 오직 자성정혜를 깨달아 생각마다 자성정혜로 돌이키고 비추어(返照) ‘자성을 떠나지 않는[不離自性]’ 원만한 수행이고,⁸¹⁾ 자성을 등지면 범부이고 이를 따르면 성인(聖人)인 것이다.⁸²⁾

2. 돈문의 상근기와 이문정혜쌍수

지눌의 돈오점수는 돈문의 상근기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다. 상근기는 ‘능히 신심을 내어 깨달아 들어가는 자로서 제 마음은 깨끗하고 묘한 덕을 가졌다

77) 『牧牛子修心訣』(H4, p.712c), “何故於此頓門 亦有機勝者 亦有機劣者 不可一例 判其行李也.”

78) 『勸修定慧結社文』(H4, p.702a), “今時修心人 具佛種性 依頓宗直指之門 發決定信解者 直了自心 常寂寂然 惺惺 依此而起修故 雖具修萬行 唯以無念爲宗 無作爲本也 以無念無作故 無有時劫地位漸次之行 亦無法義差別之相.”

79) 『勸修定慧結社文』(H4, p.700b), “何如先須信解心性本淨 煩惱本空.”

80) 『勸修定慧結社文』(H4, p.702a-b), “以具修故 塵數法門 諸地功德 妙心體具 如如意珠 此中惺惺寂寂之意 或直約離念心體 或約用功門說之 故修性具圓 理行兼暢 修行徑路 莫斯爲最.”

81) 지눌은 돈오점수의 정혜쌍수 수행이 “침묵만 지키는 어리석은 선(癡禪)이나 문자만 찾는 미친 지혜(狂慧)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勸修定慧結社文』(H4, p.700b), “若能如是定慧雙運 萬行齊修 則豈比夫空守默之癡禪 但尋文之狂慧者也.”)이라 하였다.

82) 『勸修定慧結社文』(H4, pp.701c-702a), “所謂眞淨明妙 虛徹靈通 卓然而獨尊者也 背之則凡 順之則聖.”

고 하는 말을 듣고 믿고 즐거워하여 닦아 익히는 자⁸³⁾이다. 또한 하근기의 사람들에게는 공관(空觀)의 수행을 권하였는데, 하근기는 ‘나라는 相’에 굳게 집착하여 그 습기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갖은 의혹의 장애를 일으켜 情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이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사대와 오음이 인연을 따라 환영처럼 난 것으로서 거짓이요 진실이 아닌 것이 마치 뜬 물거품과 같아서 그 속이 비었는데 무엇을 나라하고 무엇을 남이라 하겠는가.’⁸⁴⁾ 라는 공관으로 그 견해를 부수라 하였다.⁸⁵⁾

기존 연구는 자성정혜가 상근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상정혜는 하근기에 해당하는 수행으로 이원화시켜 이해하였지만⁸⁶⁾ 지눌이 뜻하는 정혜쌍수는 이문정혜의 쌍수로서 돈문의 상근기의 수행으로 볼 수 있다. 지눌은 닦을 필요가 없는 ‘수승한 상근기’에게는 이문정혜 수행을 말할 필요가 없고 오직 상근기 가운데 근기가 모자라는 사람들을 위해 이를 제기한 것이다.

지눌이 말하는 돈오점수의 이문정혜가 분명 돈문의 상근기 수행인 것은 “심성이 본래 깨끗하고, 번뇌가 본래 空함을 깨쳤으므로 점문의 하근기가 닦는 오염(汚染)된 수행에 떨어지지 않기”⁸⁷⁾ 때문이다. ‘오염된 수행’이란 깨닫기 전에 닦는 점문의 수상정혜로서, 북종과 같이 정혜의 선후 분리가 있고 지해(知解)가 있는 정혜병진을 말한다.⁸⁸⁾ 그러나 지눌의 수상정혜는 깨달은 후

83) 『勸修定慧結社文』(H4, p.704c), “今時如此修心者 爲上根也 ... 聞自心淨妙之德 信樂修習.”

84) 『勸修定慧結社文』(H4, p.704c), “未能忘情者 且以空觀 推破自他身心 四大五陰 從緣幻出 虛假非實 猶如浮泡 其中空虛 以何爲我 以何爲人.”

85) 지눌은 정혜쌍수 외에 무심합도문을 세워(『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4, p.748b-c), “禪門又有修定慧外 無心合道門.”) 무심공부를 주된 것으로 삼고 온갖 선행으로 보조를 삼으라 하였다.(『眞心直說』(H4, p.720c), “以無心息妄爲正 以習衆善爲助.”)

86) 기존연구는 보조의 돈오점수설이 북종의 수상정혜와 상통하는 것으로서 지눌이 혜능의 자성정혜보다 북종 신수의 수상정혜에 보다 역점 둔 것으로 보았다.(김호성, 「보조의 이문정혜에 대한 사상사적 고찰」, 앞의 논문, p.428; 강혜원, 「북종선과 보조선의 상통성」, 『한국불교학』 제12집(서울: 한국불교학회, 1987), p.159.) 그러나 지눌은 점문인 북종의 수상정혜가 돈오 이전의 점수로서 자신이 주장하는 것과 다름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지눌의 수상정혜는 ‘돈오를 전제한 수상정혜’이고, ‘자성정혜와의 합일을 이루는 무념수(無念修)’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87) 『牧牛子修心訣』(H4, p.713a), “以先頓悟 心性本淨 煩惱本空故 即不落漸門劣機污染修也.”

88) 지눌의 정혜를 정혜병진의 지관(止觀)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거나 지관을 정혜의 전단계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역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눌은 지관을 ‘성성적적의 자성을 깨달은 선상에서의 수행’으로 말했고, 또한 “치란 반연을 쉬어 고요함에 합하는 것이고 觀은 성상(性相)을 관조하여

에 닿는 것이기에 점문과 다르고, 자성정혜와 결합된 수상정혜이기에 능소가 없는 무념수이다. 지눌은 말하기를 만일 이런 이치를 안다면 “이문정혜(二門定慧)를 선후와 차례를 나누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는 의심은 없을 것”⁸⁹⁾이라 힘주어 말한다.

본래 선정과 지혜는 계정혜 삼학을 둘로 나누어 명칭한 것이다. 갖추어 말하면 계율·선정·지혜이다.⁹⁰⁾ 지눌이 삼학을 정혜라 하고, 이를 다시 수상정혜와 자성정혜의 이문정혜로 의미 짓는 것⁹¹⁾은 결국 정혜가 곧 이문정혜이고 정혜쌍수는 곧 이문정혜쌍수가 됨 뜻한다. 만약 자성정혜를 상근기의 수행으로 수상정혜를 하근기의 수행으로 나눈다면 이는 지눌의 취지에 어긋날 것이다. 지눌이 의도하는 정혜쌍수의 수행은 선후가 없는 자성정혜와 수상정혜의 합일이자 이문정혜(二門定慧)의 쌍수로서 “닿는 문[수상정혜]과 심성 그대로의 문[자성정혜]이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아 이 중 하나만 없어도 안 되는”⁹²⁾ 수행법이다.

V. 결론

지눌은 모든 마음 수행의 근본이 자성을 돈오함에서 시작됨을 강조했다. 지눌이 말하는 자성은 『기신론』으로 표현하면 불변(不變)·수연(隨緣)이고, 화연으로 표현하면 성상(性相)·이사(理事)이지만 지눌이 비증을 두어 즐겨 쓴 표현

‘지(知)’에 함하는 것(『勸修定慧結社文』(H4, p.702c), 謂約了悟時名爲理智 理卽是寂 智卽是知 約發心修時名爲止觀 止息塵緣 契於寂也 觀照性相 冥於知也.)”이라 하였다. 이는 고요함에 계합하여 자성반조를 행하는 것이기에 지눌이 취한 수상정혜와 같은 개념이라 할 것이다. 즉 지눌은 지관을 ‘반연을 쉬어 고요함에 합하고 성상의 자성을 반조하여 앞에 계합하는’ 것으로서 수상정혜의 맥락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89) 『牧牛子修心訣』(H4, p.713a-b), “若知如是 則豈以二門定慧 有先後次第二見之疑乎 願諸修道之人 研味此語 更莫狐疑.”

90) 『勸修定慧結社文』(H4, p.700c), “定慧二字 乃三學之分稱 具云戒定慧.”

91) 『勸修定慧結社文』(H4, p.700c), “又此三學 有隨相稱性之別.”

92) 『勸修定慧結社文』(H4, p.703c), “此修性二門 如鳥兩翼 闕一不加.”

은 ‘비고 고요하면서도 신령스럽게 아는 공적영지(空寂靈知)’이다. 지눌은 자성을 단순히 ‘空’이나 청정심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교가의 자성개념을 결합시켜 ‘스스로 환히 아는’ 영지(靈知)이자 ‘진실로 아는 진여’ 그 자체라 하였다. ‘자성을 깨달음’이란 이 신령한 앎을 자각하는 것이고, 나의 심신이 본래 법계임을 깨닫는 것이며, 능소(能所)가 없는 바로 부동지(不動智)로서 시비(是非)·정사(正邪)를 잘 가리는 묘한 지혜임을 체득(體得)하는 것이다.

지눌이 말하는 성불이란 견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성의 작용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는 인연을 따르면서도 자성의 근본작용을 어떻게 나타내느냐를 주된 핵심으로 삼는 것인데 그 방법이 바로 자성을 돈오하여 닦는 점수이다. 돈오점수란 돈문의 상근기가 행하는 수행으로서 ‘깨달음에 의지해 닦는 것’과 ‘생각마다 백천삼매를 닦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기 본성을 깨닫고, 번뇌가 일 때마다 번뇌의 공함을 알아 자성정혜를 반조하여 자성과 합할 뿐이다. 이 닦음은 돈오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원수(圓修)이고, 모든 행에서 백천삼매를 닦는 무념수이기에 원점(圓漸)이다. 즉 깨달은 자성의 참 법계의 원만한 작용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원수(圓修)이고, 생각마다 무념으로 닦는 수행이기에 원점(圓漸)인 것이다. 또한 이 원점은 곧 신통변화의 홍익중생하는 점원(漸圓)으로 이어진다. 신통변화 역시 지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행의 한 차원으로서 각행의 점원(漸圓)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원만한 각행으로 보리군생(普利群生)해야 성불했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눌의 돈오에 의한 점수는 “돈오와 점수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이 가운데 하나가 없어도 안 되는 수행이고”, 원수(圓修)·원점(圓漸)·점원(漸圓)을 성불의 과정으로 삼는 수행이다. 지눌은 이 돈오점수를 최상승선(最上乘禪)이라 했다.

현재 학계에는 지눌의 돈오점수 수행이 수상정혜문으로서 점문의 수행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만연해 있지만 돈오점수는 어디까지나 돈문의 수행이자, 이문정혜쌍수라는 것을 본 연구는 밝혀보고자 했다. 지눌이 돈문의 자성정혜만을 취하지 않고 점문에서 수상정혜를 빌려온 것은 깨달음의 수행이 생각마다 자성을 반조하여 보리군생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근기에 따라 못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은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상황에 맞는 적실성이 필요하고 이 적실성은 자성반조를 통해 순간마다 근본작용이 현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원전류

- H: 『韓國佛敎全書』

2. 단행본

- 강건기 · 김호성 공편저, 『覺 깨달음, 돈오점수인가 돈오돈수인가 : 돈점논쟁의 역사와 현재』, 서울: 민족사, 1992.
- 동국역경원 역, 『보조국사집』, 서울: 동국대학교 동국역경원, 1995.
- 박성배, 『한국사상과 불교: 원효와 퇴계, 그리고 돈점논쟁』, 서울: 혜안, 2009.
-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마음과 철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3. 논문

- 강건기, 「지눌의 돈오점수 사상」, 『인문논총』 제15집, 전주: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85, pp.41-69.
- 강건기, 「『수심결』의 체계와 사상」, 『보조사상』 제12집, 서울: 보조사상연구원, 1999, pp.9-54.
- 강혜원, 「북종선과 보조선의 상통성」, 『한국불교학』 제12집, 서울: 한국불교학회, 1987, pp.129-159.
- 권기중, 「지눌사상의 재조명: 지눌을 다시 만나다」, 『보조사상』 제31집, 서울: 보조사상연구원, 2009, pp.13-28.
- 김용태, 「청허 휴정과 조선후기 선과 화엄」, 『불교학보』 제73집,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5, pp.63-90.
- 김호성, 「보조의 이문정해에 대한 사상사적 고찰」, 『한국불교학』 제14집, 서울: 한국불교학회, 1989, pp.405-432.
- 김호성, 「돈오점수의 새로운 해석: 돈오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제15집, 서울: 한국불교학회, 1990, pp.423-446.
- 심재룡, 「한국 선불교의 철학적 연구: 지눌(知訥)의 중국선이해(中國禪理解)를 중심으로」

- 로」, 『철학논구』 제13집,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과, 1985, pp.89-123.
- 이종익, 「선수증에 있어서 돈오점수의 과제」, 『보조사상』 제4집, 서울: 보조사상연구원, 1990, pp.239-268.
 - 정혜정, 「지눌의 깨달음의 마음공부」, 『한국교육사학』 제37권-3호, 서울: 한국교육사학회, 2015, pp.51-74.
 - 정혜정, 「지눌의 삼학(三學) 수행에 대한 원불교의 수용과 변용」, 『한국교육사학』 제38권-1호, 서울: 한국교육사학회, 2016, pp.121-144.
 - 정희경, 「보조지눌의 선교일치에 대한 고찰」, 『보조사상』 제39집, 서울: 보조사상연구원, 2013, pp.113-150.
 - 최연식, 「지눌 선사상의 사상사적 검토」, 『동방학지』 제144집,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8, pp.145-167.

Consilience of Chinul's Donojeomsu (頓悟漸修) and Two Gates (二門定慧) of Samadhi and Wisdom

Jung, Hye-Jung
Institute of Mind Humanities
Wonkwang University

This study reviewed the meaning of 'Donojeomsu (頓悟漸修: sudden enlightenment and gradual practicing)' and 'Junghyessangsu (定慧雙修: practicing samadhi and wisdom at a time)' in Chinul's Zen thought. It explored how to unite 'sudden enlightenment (頓悟)' and 'gradual practicing (漸修)'. It also explored how to integrate 'Jasangjunghye (自性定慧: the samadhi and wisdom of the true nature of humans)' with 'Susangjunghye (隨相定慧: samadhi and wisdom of following phenomenon)' in the two gates.

Sudden enlightenment means to be aware of one's own true nature, Kongjeok-Youngji (空寂靈知). Kongjeok-Youngji means empty calmness and illumination by spiritual knowing. Gradual practicing (漸修) can't separate with sudden enlightenment (頓悟), and it includes three courses: Wonsu (圓修), which means practicing with the fullness of truth, and Wonjeom (圓漸), which means total influence of 'sudden enlightenment (頓悟)' on the spiritual training. Wonjeom (圓漸) is followed by Jeomwon (漸圓), which means gradual achievement for the sake of all beings.

This study also tries a new interpretation, that 'Junghyessangsu' is 'practicing samadhi and wisdom (two gates) at a time (二門定慧雙修)' of 'Donojeomsu.' Existing research has said that 'Jasangjunghye' is 'Donodonsu' and 'Susangjunghye' is 'Donojeomsu,' saying that the former is for superior people and the latter is for inferior ones. However, Chinul brought 'Susangjunghye' of 'the gradual gate (漸門)

on the base of ‘Jasungjunghye’ of ‘the sudden gate (頓門),’ combining ‘Jasungjunghye’ with ‘Susangjunghye.’ Chinul said that “Practicing samadhi and wisdom of two gates (二門定慧雙修) is not divided into two of the first and the last.” It seems like the two wings of a bird. Also like the two wheels of a wagon, ‘Sudden enlightenment and gradual practicing,’ ‘Jasungjunghye’ and ‘Susangjunghye’ of Chinul are not able to be separated from each other.

Keywords

Jinul, Jasung (自性), Wonsu (圓修), Wonjeom (圓漸), Jeomwon (漸圓), Donojeomsu (頓悟漸修), practicing samadhi and wisdom of two gates at a time (二門定慧雙修)

2016년 11월 03일 투고
2016년 12월 08일 심사완료
2016년 12월 20일 게재확정

